

# 기존 패러다임 벗어난 교육 급선무

## 한국불교 세계화 교육, 어디까지 왔나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 역사는 50여년이 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세계화 인재 불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영어로 불교를 전하는 대표 단체인 국제포교사회는 1998년에 창립됐고, 영어 법회와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사찰들은 대부분 2007년 이후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교육은 이제 시작한 것과 진배없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불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용인 화운사에 개설한 국제불교학교(학장 법인)는 한국불교 최초의 전문 국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2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국제불교학교는 1, 2학년 비구니 스님 17명이 수학 중이며,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와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각각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인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과 'B.G.E.P(Bikkhuni-Global Empowerment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5월 6일 일제한 이들 프로그램은 비구니 스님과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영어 발음 교정·여성 리더십·글로벌 커뮤니케이션·번역 등의 교육과정으로 꾸며진다. 강좌 수료 후에는 2013년 1월 인도 바이샬리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불자연합대회'에 참가해 통역과 의전 봉사에 나선다.

'G.E.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장(서울대 교수)은 "G.E.P'은 지난해 이어 2번째로 열리고 있다. 1기 수료생들은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시 통역 봉사를 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영어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대중 강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담마학교

## 국제불교학교, G.E.P 등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상대국가 문화 먼저 이해 수행 매뉴얼·현지법 숙지

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중고등학생과 초등학교로 나뉘어진 영어 법회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는 '기초 불교 영어강좌'를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이 강좌는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과정 중 하나며, 재가 수료자에게는 국제포교사 선발시험에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 같은 세계화 인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자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한국불교를 제



5월 12일 열린 'B.G.E.P', 'G.E.P' 합동 수업에서 원어민 교수가 비구니 스님을 1:1로 교습하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로 알리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현장 감각이 필요하다. 이는 'B.G.E.P'과 같은 지속적인 현장 중심 교육에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지정 스님은 "상대국의 문화를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터쳐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기존에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세밀하게 접근·개발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포교 현장에 투입될 요원들은 서구 사회에 맞게 매뉴얼화 된 수행법과 현지 종교법, 한국불교의 특징을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 국제불교학교 학감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스님은 "화두를 던져 참가하게

하는 간화선을 서구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호흡이나 감정을 조절해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게 하는 화두 전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매뉴얼화해 통일된 수행법을 적용해야 서구인들이 쉽게 다가온다. 기존 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 특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구인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다"며 "또, 해당 나라의 종교법을 확실히 숙지해야 문제 없이 사찰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불교 세계화 교육. 이제는 실용적인 내용을 채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종일 기자 moip79@hyunbul.com

## “세계화 인재 양성에 집중”

### 용인 화운사 국제불교학교를 가다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 설명이 이어진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를 경청한다. 간간히 웃음꽃이 핀다. 사찰 교육기관에서 볼 수 있는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다. 자유롭다. 스님들 간의 토론도 열띤다. 즐거우면서도 진지한 모습들이다.

용인 화운사에 개설된 조계종 국제불교학교(학장 법인)는 명칭대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도량이다. 지난해 3월 개원한 국제불교학교에는 현재 1학년 9명, 2학년 8명 총 17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학 중이다.

이들 스님들은 대부분 해외포교에 원력을 가지고 선발된 인원들이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학교 역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2년 동안 영어, 불교교리(영어), 금강경·반야경·법화경 경전강독(영어), 리더십 강좌, 상담심리, 참선, 윤택사나, 포교방법론, 템플스테이 운영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1학년을 마치면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글로벌한 안목을 키워주는 특별 교육도 이뤄진다. 해외 공식 석상에 필요한 국제 매너부터 시사문제, 대중 스피치에 대한 전문가 강

좌도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봉은사 템플스테이에서의 영어 통역 실습도 논의 중이다.

국제불교학교 교육 과정의 목표에 대해 교학처장 지정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님들이 영어로 외국어만 잘해서는 안된다. 글로벌한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문화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불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불교학교는 세계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수학 중인 스님들이 이 같은 교육 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부담도 됐지만, 이제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닌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운성 스님(국제불교학교 2)은 "학교에 들어와서 참선이라는 수행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존의 원력이 더욱 커졌다"며

## 글로벌 안목 가지는 교육 17명 비구니 스님 수학 중 전인적 승승 양성이 목표

"영어를 매개체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과 연수를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접하며 내 안의 좁은 울타리를 볼 수 있었다. 졸업 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제 스님(국제불교학교 2)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는 사회에서도 불교에서도 드물다. 이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을 느낀다"며 "현재 중단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해외포교 포교 요원으로 파견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쓰임이 있다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고 사원했다.

용인 화운사=신종일 기자

# 세계불교사부터 승가 영어교재까지...

## 불교 세계화 관련 교재 무엇이 있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풍부한 교육교재다. 하지만 불교계가 세계 불교와 관련된 서적 발간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인도, 일본, 동남아, 몽골 등의 불교사에 대한 개론서가 발간되기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조계종에서도 세계불교사와 승가 영어 교육 교재 등을 내놨다.

## 세계화의 기초, 영어 교재

불교계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영어 교육 교재로는 대표적으로 올해 3월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허정)가 발간한 <불교영어 초급 1>를 꼽을 수 있다. 사찰 일상회화를 기초로 하는 <불교영어 초급 1>은 불교교리, 한국불교 역



사와 문화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단원도 포함돼 있다.

이 교재는 개편된 승가대학 표준교과 과정의 교재로 사용되며, 향후 불학연구소는 초급2, 중급 1·2, 고급 1·2 편을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육 교재 <헬로, 달마스>는 2009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간됐다. '지혜', '자비', '고집멸도', '수행' '기도' 등

불교의 개념과 핵심적 교리, 불교 신앙체계 등을 쉽고 정확한 영어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했으며, 삽화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안목을 넓혀줄 세계불교 역사 개론서 세계불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월 조계종 불학연구소와 불광출판사가 펴낸 <한 권으로 읽는 세계불교사>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 승가기본교육기관 2학년 2학기 필수교과목인 '세계불교사' 교재로도 사용되는 이 책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부터 중국, 일본은 물론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불교와 티베트, 몽골, 타이완 그리고 미국 등 12개 나라의 불교전과 과정과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미국불교사의 권위자 릭 필즈의 <이야기 미국불교사>는 세계화의 중심인 미국불교를 심도 있게 볼 수 있게 한다. 불교가 유럽을 거쳐 미국에 뿌리내리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한 충돌, 교섭, 융합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으며, 미국 사회에 주류로 잡은 일본, 티베트 불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시이요네오(石井米雄)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장이 저술한 <동남아시아의 불교 수용과 전개>는 한국불교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불교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신종일 기자



국제불교학교 학인스님들이 원어민 교수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남해 제일 관음기도도량

# 대한불교 조계종 금오산 향일암

## 주지 원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7 전화 061)644-4742 홈페이지 www.hyangiram.org

## 대한불교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증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젊은 장병 불자들의 포교 전담인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부처님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신축법당 대작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하여 1200분의 원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평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원불 모연불사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중교구장 자 광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 승 일 등 합장  
국군 불교총신도회 회장 육군중장 원태호

원불 / 불사금 후원계좌번호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농협 301-0063-3042-71 예금주: 군중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 ☎ (02)749-8646, 797-7266 / www.gunindra.com